

익산다이로움 선순환 효과 특특

시민 누구나 보장, 보험 아시나요

누적 발행액 약 1조2000억원 이상 지역 상권 유입... 소비 유발 효과 UP

전국 최고로 인정받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1조원 이상 지역에 풀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특특히 거두고 있다.

특히 다이로움 가입자 1인당 100만원이 넘는 혜택이 제공되면서 시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시민에게 지급된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은 총 1,594억원에 달한다. 지급형 화폐로 지급된 정책 수당 450여 억원까지 더하면 약 2,038억원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총 가입자 수가 20만2,000여명인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100만원이 넘게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선순환 역할을



특특히 했다. 다이로움 총 누적 발행액 약 1조2천억원이 지역 상권에 유입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다양한 검증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시가 추진한 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 용역 결과 재정부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됐으며 시민 대

상 설문조사에서 시 10대 공감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8.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다이로움은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민생경제에 이로운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민 생활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민안전보험, 상해·사망 등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

군산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7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지난 2월 20일 보장이 개시된 2023년 시민안전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 보장까지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물손(만 12세 미만 대상), 실버손(만 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 장애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마을복지리더 '이웃애(愛)돌봄단' 발대식

익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 단위로 이웃들의 위기 상황을 직접 살피는 '마을복지리더이웃애(愛)돌봄단'을 운영한다.

익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위원장 김재일)는 7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마을복지리더이웃애(愛)돌봄단'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웃애(愛)돌봄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161명의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홀로 사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개 읍면동에서 공동 지역복지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웃애(愛)돌봄단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과 달려라 이웃애(愛)돌봄단의 구호와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또한 시 복지정책과 양재형 통합사례관리사의 '고독사 없는 익산시'라는 제목의 우수사례발표와 김미경 강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복지리더 실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모티버단의 역할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교육을 병행했다.

김재일 대표위원장은 "복지위기가 예상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단의 능동적인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제도적인 복지 혜택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1조 6889억원 규모... 소상공인·취약계층 중점지원

군산시가 고물가,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 542억원이 늘어난 1조6,88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5,331억원, 특별회계 1,558

억원이다.

주요 재원으로는 최종 산정·통보된 2023년 지방교부세 차액 270억원, 국도비보조금 112억원, 내부유보금 등 16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직면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추진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을 반영, 확보한 국도비에 시비를 적기 대응해 각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행정과 의회가 협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살맛 나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3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1기 강좌 모집

시민들의 활력 미중물인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가 2023년 1기 강좌 모집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 곁에 다가갈 예정이다.

1기는 8일부터 17일까지 총 35개 강좌를 모집하며, 사전에 학습장소(사업주)와 협의하여 원하는 장소 섭외 후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간 설문 조사를 통해 개별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 신청자가 동일 강좌로 5인 이상이 구성되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강좌 접수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올해 동네문화카페는 연 3기 운영하



는 기본 강좌 외에도 가족, 직장인, 세대 간의 융합, 숨은 재능 공유 등의 특화 강좌로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학습 욕구를 해소시키고,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상가에서의 전시, 체험, 거리 공연 등의 재능기부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이 배움과 동시에 한 걸음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아심차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2018년에 첫 시작한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한단계 도약하여 배움 성장(자생), 공유, 환원 키워드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 시대에 미래 불확실성을 대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정보망(http://ll.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교육지원과(063-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지역 도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군산시가 7일 군산지역 전북도의회 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태항·김동구·박정희·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김미정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가 참석해 새만금 관련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새만금 동서도로 및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관련 군산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추진방향과 추후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유관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들로 주를 이뤄졌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며 새만금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미정 부시장은 "새만금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와 군산시가 공조체계를 이루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며 전북도의원들 역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와 긴밀하고 꾸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유튜브 이리랑익산', 시민 크리에이터 본격 활동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유튜브채널 '이리랑익산' 시민 크리에이터 2기 최종 8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리랑 익산은 익산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장소 일상에 대한 영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채널이다.

시민크리에이터들은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 연간 활동 계획을 확정하며 숨겨진 문화도시 익산의 보석들을 찾아 준비를 마쳤다. 첫 영상은 7일부터 유튜브 채널 '이리랑익산'에 업로드된다.

영상주제로는 △사계절 시골 일상 브이로그(vlog)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자의 익산 여행지 소개 △이색데이트 숨어있는 공방과 원데이클래스 △드론 전문가가 본 익산명소 △익산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가이드 △익산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하기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수달·원앙 서식지 도순저수지 낚시금지 추진

익산시가 수달과 원앙 서식지로 수자원 생태보고로 꼽히는 왕궁면 소재 도순(용화)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하며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인근 폐기물 투기 등 수질오염 차단에 나섰다.

도순저수지는 지난 1941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밀영위자중인 수달, 남생이 및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최근 배를 이용한 전문적인 낚시인구 증가로 수생동물들 무분별하게 낚획하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